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박중언 기소에 유족들 “환영, 중처법 심판받아야”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9.25 14:47

검찰,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박순관 등 기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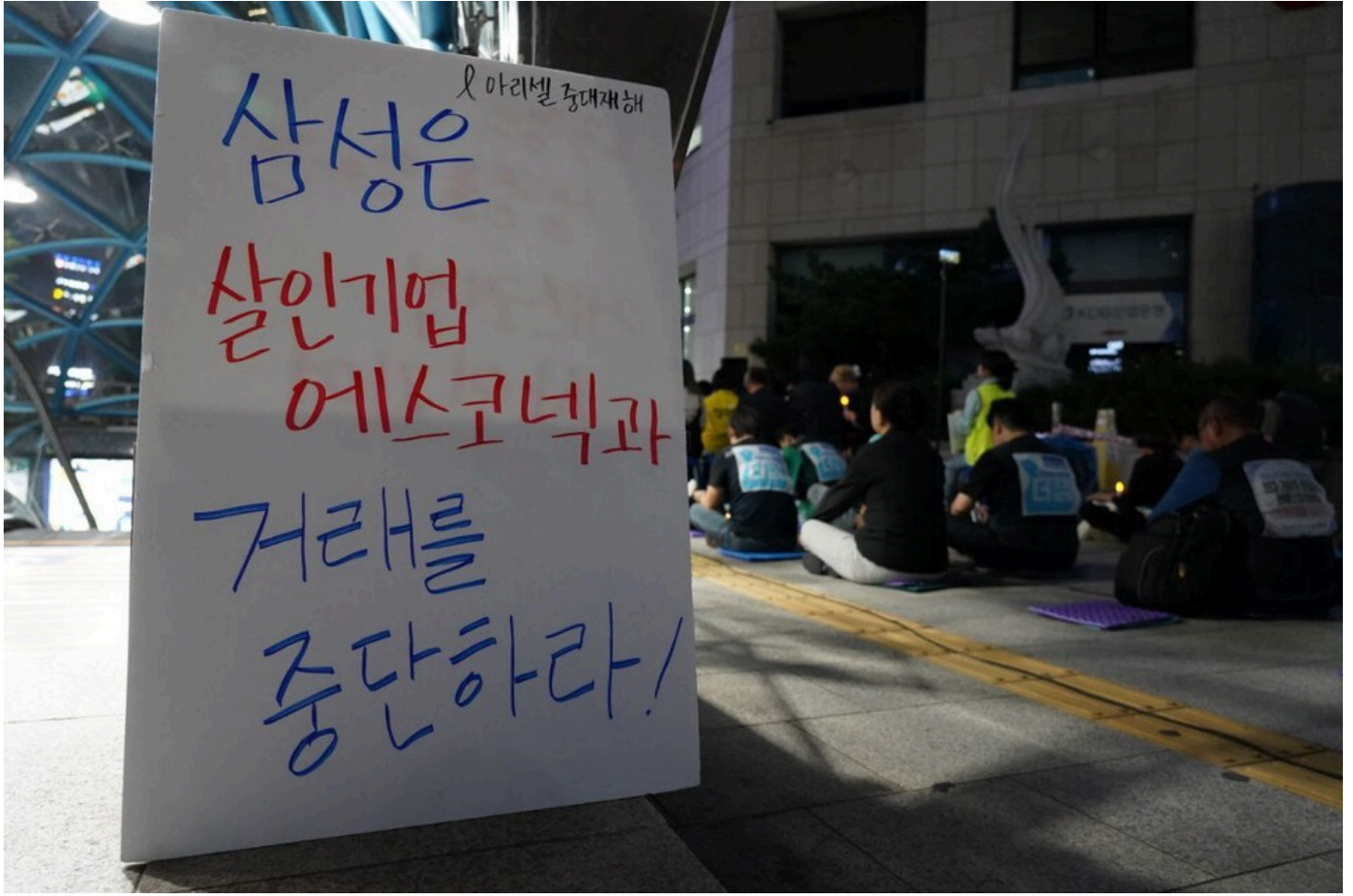


검찰이 참사가 발생한 지 93일 만인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과 그의 아들 박중언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결정이 있기 하루전부터 참사 유족들과 대책위는 부터 수원지방법검찰청 앞에서 박순관에 대한 즉각 기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상태였다. 기소 결정을 받아안은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참사의 배후에 있는 에스코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박순관은 희생자 가족과 교섭을 회피하며, 에스코넥으로 책임이 확대, 확정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알파한 숫자 장난으로 법과 판례를 무시하며 어떻게든 배·보상을 회피하고 에스코넥을 지켜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라며 “이는 희생자를 두 번 죽임으로 내몰며, 희생자 가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다시 한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심판과 정당한 배,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희생자 가족과 ‘대책위’는 서울시민 추모제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로 이동했다.

삼성(삼성전자, 삼성SDI)은 아리셀 참사 주범인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추모와 다짐’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아래는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싸운다고 가족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있다. 산재피해 유족들이 단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사회를 바꿀거라 생각했지만 아리셀 참사는 그 기대를 부순 듯하다.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 죽음의 이주화가 되었고, 특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불법파견으로 중간 착취를 일삼고 있고, 아리셀 투쟁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투쟁이고 안전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의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라?라는 말을 건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건네고 싶다. 안녕해야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은 안전에 있어서도 고용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해고는 살인과도 같고, 한전의 부당하게 184명을 해고해 맞서 싸우고 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죽음을 막기 위해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 막아야 한다. 갈대도 나무처럼 합치면 꺾이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연대로 힘이 되겠다.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맞서 서로에게 힘이 되자.”

이맘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아리셀 유족에게 보내는 의 편지글을 보내왔다.

“대구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이맘이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한국에서 일하길 꿈꿨다.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빨리 일하라는 욕이었다. 관리자가 뒤에 서서 관리를 하고 다치면 해고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이 많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들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이 참고 일할 뿐이었다. 제가 일하는 공당은 섬유 염색 공장이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원단도 무거워 힘들었다. 배터리는 가벼워서 나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사를 보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야 했는지 생각했다.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일하는데도 교육이나 마스크 같은 안전 장비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 위험해도 다쳐도 회사도 못 옮기며 다녀야한다. 바꾸기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우자.”

쿠팡물류센터 과로사 사망자인 고 정슬기 님의 아버지 정금석 님

“한국 땅에서 살아 있다는 게 부끄럽단 생각이 든다. 제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기까지 이런 일이 내게 생길지 모르고 살았다.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 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는지 알게 되면서 분노하면서 좌절하기도 했다. 5월 28일 과로사로 죽은 후 여러 곳을 다니고 있다. 갈수록 희망보단 좌절감이 든다.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단 생각이 들곤 했다. 특히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했다. 쿠팡을 고소고발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데 수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라. 아들은 쿠팡에서 일한지 14개월 만에 과로사했다 쿠팡은 책임이 없다며 유족을 무시하고 있다. 쿠팡에서 죽음이 계속되고 있으니 더욱 참담하다. 정부는 이런 죽음을 방관하고 묵시하고 있다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길에서 외치고 있다 더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정규직에게만 열리는 비상구에 정규직원을 따라 대피한 2명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사망했다. 최초 발화 36초 내 대피하라는 안내만 있었어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책임은 에스코넥과 박순관 대표가 져야 한다. 그리고 에스코넥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거래를 이어가는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은 협력사에 행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범을 어길 경우 실사를 통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규범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에스코넥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지난 10년간 삼성의 반도체 직업병 책임을 지지 않고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고, 결국 공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삼성은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리셀 참사 가족에게 제대로 응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아리셀 참사 유족 고 이해옥 님의 유족인 여국화 님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밤샘 농성을 했다. 유족분들과 대책위 분들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에스코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93일이 지나며 땡벌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왔다 오늘이 올 동안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 대책위분들과 전국에서

오는 노동조합분들, 진보정당, 민주노총 분들 덕분에 이날까지 버틸 수 있었다. 쉽게 흩어졌을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같이 싸워달라.”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야 하는지 생각했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다”며 사회연대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추모제는 마무리됐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